



모든자는 속했습니다 •모든자는 봉사합니다

## 주제들

가을 **2013**—장애 상이군인들.

이번 호는 장애 상이군인들의 은사들과 연결해 사역하며 환영하는 교회들을 다룹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자료들은 온라인서 보세요.

([www.rca.org/disability](http://www.rca.org/disability) and [www.crcna.org/disability](http://www.crcna.org/disability))

겨울 **2014**—정신 건강.

여러분의 교회는 정신 건강 혹은 정신 병의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관계맺고 도우며 환영하는가요?

11 월 22 일 까지 이야기들을 보내주세요(400 자 이내).

이 메일: [mstephenson@crcna.org](mailto:mstephenson@crcna.org) • [tdeyoung@rca.org](mailto:tdeyoung@rca.org)

온전함을 향한 여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고 사는 전 미주개혁신교회 목사 \*

나의 베트남 전쟁 경험은 **40** 년전에 잊고싶은 것이었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로부터, 난 정신적 혹은 정서적 문제들을 겪었지만 그것들이 문제들이 되는것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더 오래된 것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위해 잠꼬대, 잠 못잠과 고통들은 더해갔다. 최고조로 다가면서 내 스스로 과격한 행동들로 돼어갈때 나는 약한자구나 생각했었다.

돌아온 몇년 후, 난 목사가 돼어 그런 넘어지는 것들을 이기어 사역하는 부르심을 느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한다고 믿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난 성도들,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 아주 열심히 봉사하였다.

베트남 상이용사로써, 난 전쟁 경험들을 우리 도움그룹에서 “난 무너졌고 타버렸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잘못된 행동때문에 목사직을 그만두기 전까지 난 **18** 년간 미주개혁신교단 목사였었다. 그것은 나와 가족과 연관된 모든사람들에게겐 파괴적인 일이었다.

내 아내와 나는 지금 우리를 사랑과 이해로 받아주는 다른 개혁신교회에 나가고 있다. 나의 지난 경험과 창피한 감정들 때문에 교회에 발을 디디기가 아주 힘들었었다. 지금의 교회를 찾았을때, 우리 이 교회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릴 치유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알았다. 여기가 상이용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치유를 위해 관심과 사랑을 주었었다.

또 난 매주 치료그룹이나, 격주의 개인 상담과 6-8 주 마다 정신치료자 방문, 가까이 있는 상이용사 관계 병원의 약들이 아주 좋았다. 우리 병원만 해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고 있는 개인을 위한 16 보조 그룹들이 있고, 이들의 많은 수가 베트남 상이용사들이다. 12 명의 나의 그룹중에서, 은퇴 가까이 일하지못해 일이나 결혼 혹은 다른 관계들을에 피해를 주어 알코올, 마약중독과 부적절한 성적행동들은 아주 이길수 있는 것들이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아주 개인적인 성향의 것이었다.

오늘날 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주의 아들과 딸들,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름은 밝히기 원치 않음.

## 상이용사들 사역을 위해 세워나가기

마크 스트븐슨, 북미주 개혁교단 장애우 사무처

군인 장병들, 상이용사들과 그 가족들은 절단 및 외상성 뇌 손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PTSD) 치료와 뇌 질병 영적 고통들 새 사회생활 적응, 관계 스트레스를 포함해 여러 도전들을 접한다. 어떤 이들은, 수년간이나 상처가 있고 심지어는 퇴역후 수십년동안도. 그들은 관계를 중시하는데-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교회들이 만일 그들이 준비가 되면 교회들은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준다.

기본적으로 교회들을 통해 일하는, 게리 비렌에 의해 시작된 미시간 상이군인 태스크 포스는 돌아오는 그들에게 전쟁과 폭력의 영적 영향력을 다룸과 함께 다시오는

그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었다. 베렌은 “건강의 6 가지 면들을 말하면서, 우리 그들의 전인적 강건함의 연결에 큰 영향을 갖고있다”고 말한다. 이것들은 육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가족 그리고 영적 건강들이다.

전 개혁신교회 성도인 비렌은 군목의 신학등을 공부하면서 2년 전에 미시간에 상이군인 태스크 포스인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시작해 일하였고, 이 단체는 2012년 미국 방위군에 의해 “돌봄의 파트너들”의 한 프로그램이며 미시간, 인디애나 북부와 오하이오 북부지역에서 200개 이상의 교회들에게 사역을 도움을 주고있다.

교회들은 여러면에서 비렌이 “사역 용사들”이라 부르는 곳에 연결돼있고 상이군인 태스크 포스는 그들의 일을 돕는 자료들을 준비해주고 군목들과 그 가족들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와 뇌 질병을 교회들은 교회안에서 부터 돌봄을 준비해 있고 교회밖에 있는 자료들을 그들에게 알려준다.

많은 군인들과 상이군인들은 “도덕 상처”를 다루면서 기독교 윤리의 일들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있다. 교회서 필요한 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은 도덕 상처들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상이군인 태스크 포스는 남동쪽 아래 미시간에 위치한 자유 캠프와 협력을 해 교회들은 부부들과 가족들에게 주말과 야외 활동의 유익을 주선하고 있다. 그런 행사들엔

참석자들이 필요하면 카운셀러, 의료자들과 군목들이 준비돼있다.

상이군인 태스크 포스는 교회안의 훈련을 중재하며 그들과 가족들에게 돌봄과 군인 봉사들과 함께 중재자역할을 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는 ([www.mivettaskforce.com](http://www.mivettaskforce.com)) 용사사역을 하기 원하는 교회들에게 4 단계의 진행으로 요약해 놓고있다.

비렌은 얘기하기를 ”난 우리가 서로 함께 일한다면 영적 돌봄의 영향 이상으로 군대서 종사하는 실존 도움의 중재도 함께할 수 있다”고 말한다.

## 아이다호 교회가 생명선을 제공하다

by 페트리시아 글랜, 미주 개혁신교단 지역 장애 변호인

아이다호주의 상이군인 노숙자 기관서 자원봉사 담당자로서 나는 그들 매일의 곤경스런 삶을 보고있다.

종종 이들의 경험은 전쟁 후 겪는 문제이다. 왜냐면 그들은 개들의 시끄러움에도 두려움을 표출하기에 우린 조용한 방이나 그들에서 개들을 멀리하곤 한다. 나의 자주하는 일중의 하나는 얼마동안이나 따듯한 음식을 먹지못한 그들에게 속히 준비하는 것이다.

교회 근처의 포스트 폴스 도시의 ‘참된 삶의 사역’은 우리 기관에 오는 그들의 필요한 모든것인, 음식, 옷, 개인용품, 운송, 돈과 사랑까지 공급하는 사역을 하고있다. 금번

8 월엔 교회서 상이용사 가정의 자녀들이 개학할 때 필요위해 가방이나 여러가지를 모았다. 이것은 아주 귀한 공동체를 위한 전도였다. 교회는 매주일 아침에 그들위한 모임을 준비한다.

상이용사 참된 삶의 사역의 간지에 보면: “전쟁의 현실은 모두가 상처를 받았다. 어떤 상처는 빠르게 아물지만 어떤것은 영구적인 것도 있다...수십년간 전쟁기억을 외롭게 숨기며 지내는 그들이나 혹 침으로 무서운 전쟁에서 돌아온 젊은 용사들이나, 하나님의 능력, 말씀인 하나님의 능력과 교회안 하나님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들이 회복하는데 큰 자원이 되고있다. 이 회복은 전쟁의 정신적 상처들은 가진 그들의 가족이나 다른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분명히 주고있다.”

한 상이용사인 로이는 내게 말하기를, 만약 이런 교회의 사역이 없었더라면 필요한 음식, 옷이나 잠자리들을 자신이 해결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거나 그것들을 찾아 헤매며 방황했을것이라 한다.

## 편지

### 제발, ‘관심’ 이상

장애 상이용사의 관심의 글들에 감사를 드린다. 나는 이 글들이 단지 그들을 향한 교회의 “관심”이상이 돼기를 바란다.

1978 년에 난 교회 파수꾼 지에 전쟁으로 인한 영적이며 정신적인 문제들에 관한 글인 잘 알려지지 않은 전쟁 용사의 필요들에 관해 교회들의 관심이 필요함을 쓴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잘 알지도 못했지만 이것이 지금엔 “가족 내력”의 하나로 알고있다.

많은 장애 상이용사들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영적이나 정서적인 이상들이다. 이것은 내가 용사 관계 병원에서 군목으로 10년간 봉사하면서 얻은 것으로 미국 베트남 상이용사안에서 계속 봉사하는 이유다.

계속적인 예비군과 방위군 배치의 전개는 “정상적인” 군인들과 같이, 사고/장애의 숫자가 매일 늘고있다. 지난번 난 보통 하루에 약 22 건 전쟁 연관된 자살이 일어나는 숫자가 진짜 전쟁중의 숫자이상이라고 들었다. 퇴역용사들은 인구의 7% 정도인데 비해 모든 자살의 20% 정도 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인구의 약 1%도 안되게 봉사하지만, 미국인들은 군대나 전쟁의 결과들에 특히 우리 교회들안에선 제대한 이들은 “숨겨져” 있는 실정이다. 내가 믿기론 전쟁서 제대한 약 75% 용사들이 양심의 고통으로 힘들어 하기에 종교적인 기관들의 도움들을 구하고 있다.

- 도날드 쟈센, 전 미주개혁교단 군목, 미시간, 홀랜드

## 한 도전적 변화 by 에멜리 엔덜스 오돔\*

이락과 아프칸니스탄 전쟁서 집으로 돌아오는 군대의 남.여들은 지금도 힘든 기억의 경험들을 갖고있다. 심각한 고통의 숫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이다.

“당신이 전쟁중에 있을 때, 알람 종은 항상 꺼져있지만 전쟁상태의 반응은 항상 켜져있다,”고 켄터키주 루이스빌의 로블리 에스 제향군인 관계병원의 적성기관 매니저 라우라 에트우드씨는 말한다. “그 후 집에 왔지만 그 문제인 당신이 신경계는 아직도 진정돼 있지 않다. 알람들은 꺼져는 있지만 불은 나지 않고 있다.”

에트우드씨는 이 병을 “비정상적인 일들에 정상적인 반응이며 현 군인들 속에 치료되든 않든 부적절한 해결 상태들인 상태의 시간 문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한다. “모든 전쟁 군인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고 있다,”고 알래스카 포트 웨인라이트의 미 육군 군목인 케비 웨인라이트는 말하면서, “그러나 모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미군대의 최근 자본 감소의 웨인라이트씨는, 군대 여러곳의 장병들은 그들의 집이나 공동체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일을 하는 것 뿐 아니라, 그곳에 속했고 반기는 일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군대에서, 이 남.녀 군인들은 목적과 사명이 있었지요; 그들은 큰 용사들이었지요. 지금 그들 시민의 삶은 다르지요: 경직돼 있지 않고,정해져 있지않고, 거기서 그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그리고 그들은 교회들에게 도움을 요할것 입니다.”

\*오늘의 장로교회들, 2013 , 9 월호서 허락받아 기제함

([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 today/The-wounds-of-war-0913/](http://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today/The-wounds-of-war-0913/) or [pcusa.org/today](http://pcusa.org/today))

**편집장의 글**



##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난 1960 대와 70 년 초 캐나다의 군인들은 어떻게 대우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선 종종 부끄럽게 취급해 왔었다. 예를들어, 독일이나 베트남서 군 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타기전에 일반시민의 옷장으로 바꿔입으라고. 만약 그들이 군복을 입고 비행기를 탈려고 하면 그들은 고향을 듣든지 욕을먹든지 어떤 때는 말다툼도 합니다.

그것은 긴 머리와 샌들을 한 베비 붐 세대인 상이군인들만이 아닙니다. 더 나이든 사람들도 다른식으로 그들에게 대하곤 했습니다. 우리 장애우 사무처서 교회들에게 상이군인들에게 사역함을 알려달라 했을때 난 이 아래 글을 받았습시다 (허가를 받고 게재합니다):

이 사역들을 읽으면서 나는 나의 아버지도 장애 상이군인이었다. 1975 년에 돌아가셨다. 교회 한 장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아버지가 상이군인 관련의 유익들을 받는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였다. 내 형은 장애 아버지와 그런 도움들 때문에 놀림을 받았다고 말했다. 나의 엄마는 어떤 여자들의 시기들을 얘기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바뀌감은 좋은 것이다. 장애 상이군인들은 위로, 존경과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난 전쟁에서의 군인들을 욕하거나 혹은 혜택들을 받는것을 욕하는 것들은 지금은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혜택들이란 단지 악한 일이고만 생각않고; 그것은 좋은 일을 함을 말합니다. 우린 이번 호가 장애 상이군인 사역하는 교회들의 이야기을 나누는 것과 우리

개혁교단들이 그들을 위해 사역하는 것들을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침묵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난 여러분의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상이군인 남.여,  
가족들을 위한 사역들을 주요하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마크 스트븐슨

© 2013 북미주 개혁교단과 미주 개혁교단의 장애 사무처 사역들, 장애물  
헐기는 북미주 개혁교단 사무처서 발행, 2850 Kalamazoo Ave. SE, Grand  
Rapids, MI 49560-0800, and P.O. Box 5070, STN LCD 1, Burlington, ON  
L7R 3Y8; 그리고 미주 개혁교단 장애 사무처 발행, 4500 60th St. SE, Grand  
Rapids, MI 49512-9670. 마크 스트븐슨 목사, 장애우 사무처 디렉터 (888-  
463-0272; [mstephenson@crcna.org](mailto:mstephenson@crcna.org)), 테리 디 영 목사, 장애우 사무처  
코디네이터(616-541-0855; [tdeyoung@rca.org](mailto:tdeyoung@rca.org))  
장애물 헐기를 함께 편집함. 위 글들의 자료들을 밝히는 것 한에서 사본을  
허락함.

북미주 개혁교단과 미주 개혁교단의 협력 장애 사역들  
[www.crcna.org/disability](http://www.crcna.org/disability) • [www.rca.org/disability](http://www.rca.org/disability)